1장: 진보주의 정권의 출현 (1933-1941)

1. 뉴딜: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

- 1) 두개의 정치적 조류
- *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대체로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
- 첫째는 부모가 많이 간섭하지 않고 아이를 자율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,
- 둘째는 부모가 일일이 아이의 행동을 점검하면서 지도 하고 키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. 어떤 방법이 절대 적으로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.

- 첫 번째 방법으로 키우면 아이의 독립성이 확대되고,
 커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혼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.
 그러나 아이가 자율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부모가 모르는 유
 - 그러나 아이가 자율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부모가 모르는 유혹이나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,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에 극한 경우 오래 전 **대구의 개구리 소년**처럼 아이가 꽃도 피우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.
- ▶ 두 번째 방법은 아이에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잘 지도할 수는 있으나, 아이가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도 부모 에게 의지하려는 소위 <u>마마보이</u>가 될 수도 있다. 지금 이 두 가지 예가 전 세계 모든 정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.
- 이런 논리를 미국사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첫 번째 예를
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며, 두 번째 예는 정부간섭주의라고 분른다.

a) 자유방임주의(Laissez-faireism)

- ▶ 1920년대 미국의 주류
- 개인주의, 자유경쟁, 자유 기업, 자유방임 등의 중산 계급적 가치

b) 정부간섭주의(Government Interventionism)

- 1930년대 대공황 + 뉴딜정책의 와중에서 주목 받음
-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름을 따서 <u>케인즈 경제학</u> (주의)라 함
- > 국가통제, 부의 재분배, 사회보장을 주 내용으로 함
- ▶ 정부간섭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서 탈피한 것인데,
- 아래 두 가지 사건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발전

● 국제주의

- ▶ 미국이 1,2차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국가기구,능력이 확대되면서
- 개인의 경제활동, 빈곤, 실업 등에 까지도 정부가 개입하게 됨
- 정부개입과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원리 강조
- 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업, 범죄 등이 순전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미국에도 영향을 끼침

c) 혼합경제체제 (Mixed Economy)

- 자유방임주의
- --> **공화당**의 기본 이념으로 발전
- 이들을 주로 보수주의자라고 함
- › 이들 중 일부는 신 우파(New Right)로 발전
- ▶ 신 우파(New Right)는 <u>전통적인 미국의 가치</u>를 보존하는 과격우파단체로 발전
- ▶ 이 두 집단이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는데 이를 __보수-우파 연합이라고 함

● <u>정부간섭주의</u>

- ▶ <u>민주당</u>의 기본이념으로 발전,
- 이들을 주로 진보주의자라고 함
- ▶ 이들 중 일부는 <u>신 좌파</u>(New Left)로 발전
- ▶ 신 좌파는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인간해방 주장
- 진보주의자와 좌파가 때에 따라 연합하기도 하는데 이를 진보-좌파 연합이라고 함

● 자유방임주의 + 정부간섭 요소

- 수정자본주의 혹은 혼합경제체제
- 미국사회 이해의 핵심이 되는데,
 요즘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
 두 가지(자유방임주의+정부간섭) 요소가 혼재된 듯함.

2. 뉴딜이전의 미국: <u>1920년대</u>(p)

1)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나라

- > 경제적 번영 구가
- ▶ 빈곤퇴치
- 진정한 소비 사회
- ▶ 냉장고, 세탁기, 진공청소기 사용되고 + 자동차 보편화 시작
- 기업가 + 기술자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
- 그러나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가 1929년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1929년에 뉴욕 주의 주식가격이 대폭락하면서 대공황 시작.
 이 당시 대공황은 한 마디로 몇 년 전 우리나라가 겪었던
 - 이 당시 대공황은 한 마디로 몇 년 전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위기의 100배 정도의 어려움
- › 후버 대통령은 대외채무를 일시 갚지 않겠다는 ** 로리움 선포

2) 중산계급의 나라

- 1921년 당시 대통령은 하딩이었는데, 1923년 사망하고 캘빈 쿨리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10년 동안 계속 공화당이 집권
- 개인소득세 + 상속세 등 각종 세금 감면
 : 즉 세금 인하하여 --> 기업이 투자를 증가하도록 하고
 이는 곧 고용확대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귀결됨.
- → 대법원도 <u>"소년노동 금지" 및 "여성최저임금 금지법안"</u> 무효화하여 -->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기업 이익 확대를 우선

- >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자유 경쟁 + 개인주의
-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
- > 창의력 + 도덕성 + 근면성으로 해결
- 자유방임주의 정신에 따르면, 개인이 잘 살고 못사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오로지 <u>개인적 역량</u>에 달렸다고 봄
 ex) 토마스 에디슨 + 헨리 포드

- > 노동운동 적대감
 - 1919년의 大파업을 공산주의와 연결 : 공산주의 운동을 자본주의 체제 전복으로 이해 --> 결국 노조를 경시하게 됨
- 한편으로 근무시간 단축 + 근로환경 개선 등 복지추구
- ▶ 1926년 연금시작
 - : 이는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성장 못하게 한 대단히 주요한 조치임 이런 조치가 없었으면 미국도 유럽에서처럼 공산주의가 크게 유행했을 수도 있음

3) 청교도의 나라

- · 프로테스탄트
- ▶ 마르크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
- > 농촌지역의 백인 중산 계급이 대부분
 이들은 이민집단 (카톨릭교도, 유대인, 흑인, 공산주의자)을
 증오하고 이민 집단들이 농촌의 전통을 파괴한다고 간주하였음
 특히 남유럽의 저 수준의 문화(알코올)에 찌든 자들이라 하여 천시함
- 금주운동요즘도 공화당 지도자들은 우월적 도덕성 주장 (특히 부시대통령)
- ▶ 문화적 갈등 팽배
- 이들은 공화당 지지
- 이들 중 일부는 극렬한 백인 우월 자들인
 "KKK"(Ku Klux Klan; p)로 발전
 이들은 미국의 도덕을 수호하는 애국자로 자처
 몇 년 전 한국 유학생이 독일에서 피살된 바를 보면 독일 등에도 있음

3. 뉴딜의 사회민주주의적 성격(p)

- 1) 민주당과 정부개입주의
- 1929년 10월 뉴욕주식 폭락
- ▶ GNP(국민총생산)의 25% 하락
- ▶ 실업자 25-80% 정도까지 증가
- ▶ 농민의 1/3이 농지를 버리고 유랑 --> 개인주의적, 자유방임주의적 낙관론 붕괴

●1932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선

- › 국가가 경제발전에 적극 개입하는 <u>뉴딜(New Deal) 정책</u> 추구
- 이는 개인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정책.
- 이에 따라 실업수당 지급 등 사회보장정책을 추진되게 됨.
- ▶ 이런 정책은 당시 유럽에서 인기를 끌던 <u>공산주의</u>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 받음

●뉴딜정책과 국가통제의 도입

- 원래 금은 비싼 물건인데, 당시의 화폐제도인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좀 더 값싼 은본위제 채택
- 화폐 가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"정부간섭주의" 채택

- 무제한 투기를 방지 위해 <u>금융규제법</u> 신설
- 증권거래위원회 설립하여 주시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제함
 - --> 증권 발행 시 반드시 등록을 의무 + 주식시장 감독
 - -->이에 따라 미국헌법의 기본정신인 3권분립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사법부나 입법부보다 <u>행정부</u>가 우세하게 되고 지방정부보다도 **연방정부**가 우세하게 변함

2) 민주당과 노동조합의 제휴

- 「농업조정법」(AAA; 1933년)
- ▶ 농산물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 주도
- 7개 기본품목(밀, 면화, 옥수수, 돼지 등)에 대한 생산량 할당 및 보조금 지급
- 「전국산업부흥법」으로 노조의 결성권 + 단체교섭권 보장
- 「전국노동관계법」(와그너법, 1935)으로 노조활동 반대 고용주는 "불공정 행위"로 규정
- 공화당의 자유방임주의 하에서는 기업가가 우선시 되었으나, 민주당의 정부간섭주의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됨.
- 「전국노동관계청」도 창설
- 노사협약체결 감독
- 유화적이고 보수적인 전국노동자연합(AFL)에 대항하여 다소 과격한 「산업노동자회의(CIO)」 탄생(1939)하면서 노조 활동이 보다 활발

3) 빈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

- 처음에는 빈민구호사업
- 나중에는 근로구호 + 공공사업 추진
- -> Keynes 경제학의 시초
- 「테네시계곡公社」(1933)의 설립
- 5개의 댐 개량 + 21개 댐 새로 설립
- 기본적으로 홍수 방지 + 전력 공급을 공급하지만, 대규모 공사를 통하여 실업자들에게 대거 일자리 제공.
- 우리나라도 불경기일 때는 고속도로, 공공건물,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에 들어가는 경비 등을 싼 이자로 건설회사에 지원하여 실업자들을 공사현장으로 대거 흡수함.
- 이들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필요한 옷, 식품, 아이들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분야의 가게들이 영업이 잘 되게 되고, 식당 이용률이 증가하고 맥주도 한잔씩 하게 되면 관련분야의 가게도 조금씩 경기가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.

- ●「사업추진청」도 설립
- ▶ 210만에 달하는 전국의 청년실업 구제 노력
- ▶ 학교, 우체국, 관청, 비행장, 도로, 다리 설립

●「전국청소년청」 설립

-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- 공공주택건립으로 과부나 이혼녀 등 경제적으로 불우한 여성 적극 보조

●「사회보장제도법」제정(1935)

- ▶ 노령보험제도로 극빈자에게 매월 \$15지원 + 은퇴자에게 연금지원
- > 재원 조달위해 부유층에 대한세금 늘림
- > 기업소득 누진세 적용
- > 고소득 및 상속에 부가세 부과

4) 뉴딜진보연합의 형성

- 정부의 역할을 분쟁조정자로
- 뉴딜 정책으로 당시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조직이 었던 기업에 <u>노조, 농민, 소비자, 흑인 등 소수민족,</u> 여성 세력을 새롭게 인정
- › 이로서 <u>이익집단 민주주의</u>의 의미 가짐
 - :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인이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큰 목소리로 요구하게 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가 집단이나 단체가 주도하 게 된다는 주의를 이익집단 민주주의라 함
 - : 이들 집단들이 뉴딜 당시에 형성되었다고 하여 <u>뉴딜연합세력</u>이라고 하고, 또 민주당이 주도한 진보제국이라 하여 민주당진보주의라고도 불림

-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<u>유럽식 사회주의화</u>라고 비난
- 국가가 개인의 모든 일에 간섭하게 되면 결국 국가 지상주의 이념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비난함
- 당시 용어로 대중을 이용한 독재 즉, 대중독재의 가능성을 우려
- 특히 뉴딜정책을 주도했던 루스벨트가 역사상 최초로 4선에 당선됨으로써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하였음